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중등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

김지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함자영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학생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 고용 및 경제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Schleicher, 2020).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은 등교 연기, 교과과정(curriculum) 조정, 원격수업 확대와 새로운 안전지침 시행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직업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기업 폐쇄 등으로 인해 실습수업과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이중의 불이익이 있었고 자격의 취득에도 영향을 받았다. 2023년 현재 대부분의 영역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전 세계 국가에서 동일한 감염증 유행을 겪으면서 중등 직업교육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에 대하여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논의를 기록해 두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대유행 시기에 적용되었던 전 세계 중등 직업학교 운영 정책의 특징 그리고 대유행 이후의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정리하였다¹⁾.

I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중등 직업학교 운영 정책 변화²⁾

1.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안정에 따른 학교 운영 방침의 변화

학교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유행의 위기

실습을 중시하는 중등 직업학교에서도 예외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

1) 이 글은 '안재영·김지영 외(2021), 『비대면 시대의 도제학교 운영 방안 연구』'에서 제2장 3절의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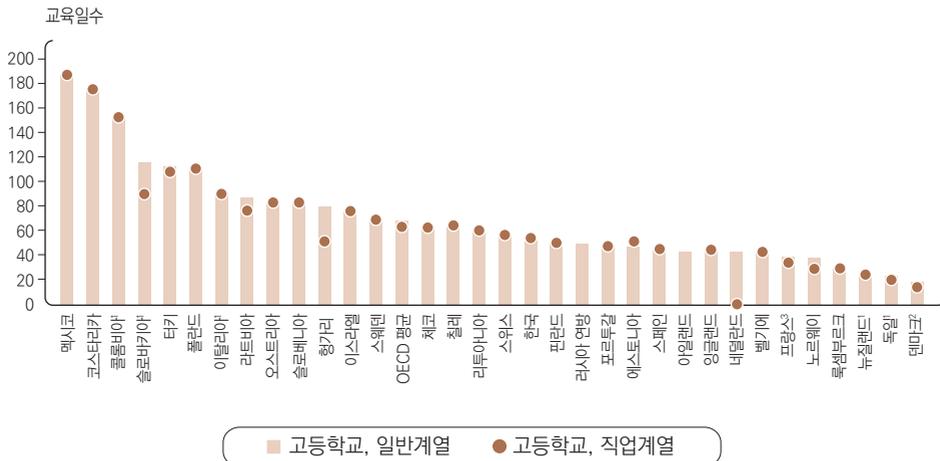
2) 이 장은 'OECD(2021a).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나19') 유행 기간 동안 휴교와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다. 감염증의 확산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부분적인 휴교 또는 하이브리드형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감염병의 확산과 안정에 따라 학교 수업 및 평가방식이 변경되었고 학교 운영 방침이 전면 수정되었다(OECD, 2021a).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전면 휴교 실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등 일반학교와 중등 직업학교의 휴교일이 동일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록 차이가 크지 않지만 중등 직업학교의 휴교 기간이 중등 일반학교보다 짧았다.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감염병 유행 초기에 중등 일반학교에서 40일 이상 휴교조치를 시행한 것에 반해 직업교육기관은 휴교를 시행하지 않았다([그림 1] 참고).

그림 1.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등교육 휴교일수(2020. 3. 12. 기준)



- 주: 1.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독일 등은 가장 일반적인 교육일수
 - 2. 덴마크는 최소 수업일수
 - 3. 프랑스는 전문자격(Baccalauréat professionnel)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준비하는 중등 직업교육만 포함
- 자료: OECD/UIS/UNESCO/UNICEF/WB Special Survey on COVID. March 2021(OECD, 2021a: 6 재인용).

중등 직업학교 교과과정(curriculum)의 특성을 고려한 등교 허용

일부 국가에서는 직업교육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등교를 허용하였다. 덴마크에서는 직업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점진적인 재개방을 도입했으며, 영국에서는 2021년 1월과 2월에 자격평가를 받는 직업학교 학생들에 한해 전면 휴교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시험 또는 특정 실습이 요구되는 경우, 지역마다 교통시설 및 학교 건물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부분적인 등교를 허용하였다. 스웨덴에서도 직업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실습이 필요한 교육과정에 한해 부분적인 등교를 허용했으며, 여기에는 졸업과 자격 획득을 위한 필수적인 실습교육이 포함되었다.

라트비아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비상 상황을 선언한 명령에 따라 전면 휴교와 원격교육을 실시했으나, 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습 중심 과정의 경우 대면 수업을 허용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에서도 감염증 유행 기간 중등 일반학교는 전면 휴교방침을 유지했으나 중등 직업학교의 실습 과정은 일부 대면 수업을 허용하였다. 슬로베니아에서는 중등 직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해당 분야의 실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등교를 허용하였다. 단, 중등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졸업반 학생, 보충학습 지원이 필요하거나 가정에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 한해 일부 등교를 허용하였다.

2.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중등 직업학교 교과과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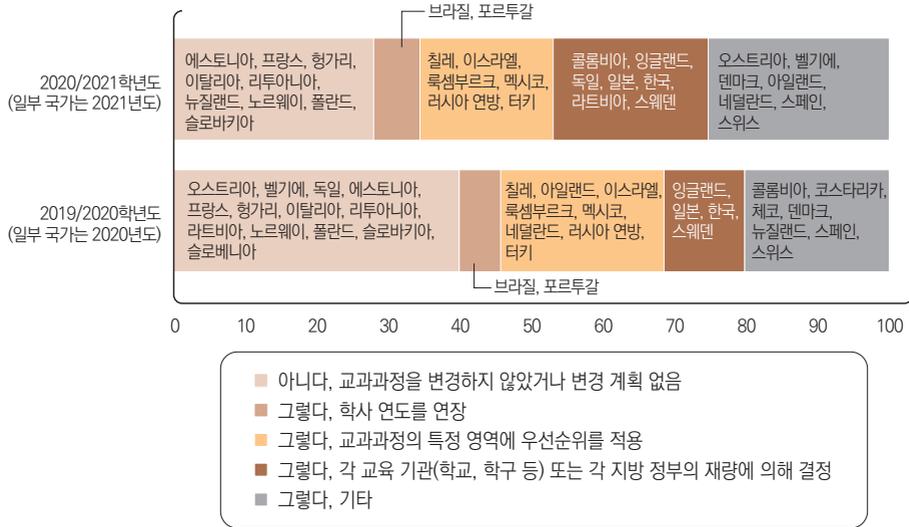
휴교 조치 시행 및 연장으로 인한 학사일정 및 교과과정 재조정

여러 국가에서 감염증 위기로 휴교 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습과 훈련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왔던 중등 직업학교는 학년도 구성 및/또는 커리큘럼을 일부 변경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교육 분야 대응 현황 조사’³⁾에 의하면 전체 143개국 중 60%의 국가에서 2019/2020년에 교육과정을 변경했고, 2020/2021년에는 교육과정 변경이 7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경우 2년 연속으로 학년을 연장했으며, 2019/2020년에는 8개국에서 커리큘럼에서 특정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용되었다. 그중 6개국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다음 해에도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서는 2차 기말고사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2021년에 15% 축소되었으나 직업학교에는 직업 관련 과목(job-related subjects)에 우선순위가 주어졌다. 2020년과 2021년 대유행 기간 국가별 중등 직업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은 다음에 제시한 [그림 2]와 같다(OECD, 2021a).

3) OECD/UIS/UNESCO/UNICEF/WB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교육 대응 현황 공동 설문조사 보고서’로 총 143개국의 설문 자료를 기초로 함(OECD 31개국, UIS 112개국). 취학 전, 유·초·중등 교육 수준의 대응 현황을 중심으로 총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함(<http://covid19.uis.unesco.org/school-closures-survey/>).

그림 2.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등 직업학교 교육과정 변화 양상(2020년 vs 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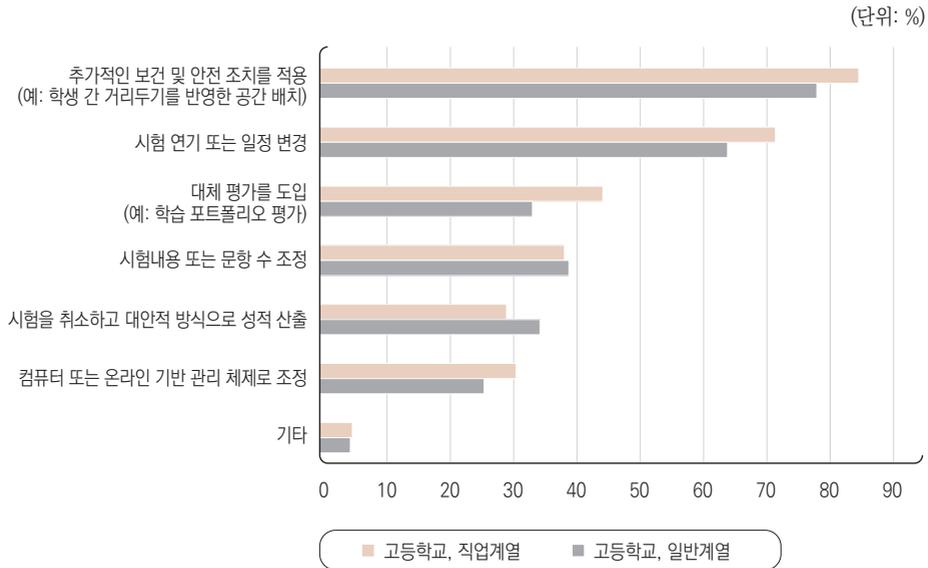
주: 2019/2020학년도 35개국 데이터와 2020/2021학년에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한 32개국을 기반으로 함.
 자료: OECD/UIS/UNESCO/UNICEF/WB Special Survey on COVID. March 2021(OECD, 2021a: 8 재인용).

먼저 ‘교과과정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변경 계획이 없는(No adjustment have been/will be made)’ 국가는 2020년에 13개국(35개국 중 40%)에서 2021년에 9개국(에스토니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으로 감소하였다. 브라질과 포르투갈은 ‘학사 연도를 연장(academic year extended)’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특정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식(prioritisation of certain areas of the curriculum or certain skills)’으로 교과과정을 변경한 국가는 2019/2020학년도에 8개국이었으며, 이 중 칠레,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멕시코, 러시아, 터키 등 6개 국가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방식을 다음 해까지 지속하였다. 그밖에 ‘각 교육기관(학교, 학구 등) 또는 각 지방 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는 2020년도 4개국에서 2021년도에 콜롬비아,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라트비아, 스웨덴 등 7개 국가로 증가하였다. 중등 직업학교에서 교과과정을 변경한 주된 이유는 직업학교 커리큘럼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구성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졸업 기준에 대한 조정으로 이어진다.

평가방식 변화

중등 직업학교의 학생 평가에는 주로 기술 시연(skills demonstrations)이 포함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엄격한 보건 및 안전 규정 지침에 따라 부분 등교를 허용하더라도 직업학교의 기존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평가방식을 변경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등학교 국가시험 시행 양상(2019/2020학년도 기준)



주: 이 수치는 일반 중등교육에 데이터가 있는 30개국과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27개국을 기반으로 함.
 자료: OECD/UIS/UNESCO/UNICEF/WB Special Survey on COVID. March 2021(OECD, 2021a: 12 재인용).

감염증 유행 기간 중등 직업학교의 국가시험(national examinations for VET) 방식의 변화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되 추가적인 ‘보건 및 안전 조치’를 적용(예: 학생 간 거리두기를 반영한 공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시험 연기 또는 일정 변경’을 결정한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중등 일반교육보다 중등 직업교육 기관에 더 많이 적용되었다. 이는 감염증 유행으로 인한 휴교 방침이 연장되거나 부분 등교를 허용하더라도 엄격한 보건 및 안전 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습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밖에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방식의 ‘대체 평가 형식을 도입’하거나 ‘시험 내용 및 문항 수 조정’, ‘시험을 취

소하고 대안적 접근방식으로 성적 산출', '컴퓨터 및 온라인 기반 관리체제로 조정' 등 평가방식을 바꾸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중등 직업교육보다 중등 일반교육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습을 통한 자격 취득을 중요시하는 중등 직업학교 교과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등 일반교육보다 중등 직업교육의 평가 조직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2019/2020 및 2020/2021 학년도에 대부분의 시험이 취소되었지만 직업교육 과목의 일부 시험은 계속 실시되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도제훈련생(apprentices)의 시험을 경험 기반 후보자(experience-based candidates)보다 우선시하였다. 다른 국가에서는 중등 직업학교 학생의 실무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폐업하거나 보건·안전 조치의 제약으로 인해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중등 직업학교는 일반적으로 실제 작업 상황 및 절차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역량을 시연하는 것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실제 업무 상황 및 절차와 최대한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률'을 임시로 개정하였다. 또한 기술 및 실무 역량의 입증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역량 평가를 도입하였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감염증 유행 기간 실무 중심의 시험만 실시하고, 중등 일반학교 및 직업학교에서의 시험은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평가위원'(the examination committees in VET)의 인원수를 조정한 국가도 있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2019/2020 및 2020/2021학년도에 평가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했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직업학교 졸업을 위한 '구술시험'에서 평가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다.

졸업 기준 및 시험 변경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모든 중등 직업학교 학생이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및 기타 형태의 실습 중심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졸업 기준을 변경하였다. 슬로베니아에서 일반적으로 중등 직업학교 학생은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무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일 기반 학습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년의 직업교육 과목 성적으로 실무과목 점수를 대체하였다. 즉, 학생이 2019/2020 및 2020/2021학년도에 모든 직업교육 과목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획득하면 일 기반 학습 조건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문제 기

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과 같은 대안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교사가 학생의 실용적인 기술을 평가하도록 권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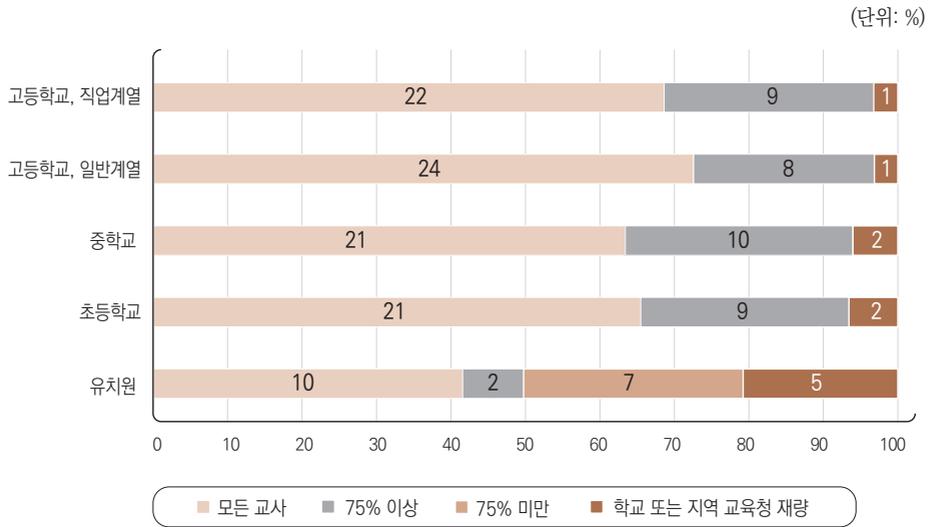
프랑스에서는 2019/2020년도 직업학교 국가시험(졸업시험)이 취소되었고 대신에 계속 평가(continuous assessment) 점수를 학업성취도에 반영하였다. 헝가리에서는 졸업시험에서 구술시험 대신 필기시험만 실시했으며, 일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 완료하지 않더라도 약 60%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코에서는 2019/2020 하반기에 학교 평가 규정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직업학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으로 '불합격'(failed) 또는 '미평가'(not evaluated)로 평가받을 수 없게 하고, 평소 학업 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Cedefop, 2020; OECD, 2021a: 13 재인용)한 것이었다.

3. 원격수업 활용 범위의 변화

직업교육에서의 원격수업 활용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전면 휴교 기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요구받았다(그림 4 참조). 'OECD/UIS/유네스코/UNICEF/WB 공동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의 약 2/3는 모든 교사가 원격수업의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약 1/3의 국가에서는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교사가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전면 휴교 기간 동안 원격 및 온라인 수업을 요구받았다고 답하였다. 중등 일반학교와 중등 직업학교도 이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원격수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원격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이유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림 4. 2020년 전면 휴교 기간 원격수업을 요구받은 교사 비율



주: OECD 34개국 및 협력국가 데이터(모름/해당 없음 제외)

자료: OECD/UIS/UNESCO/UNICEF/WB Special Survey on COVID. March 2021(OECD, 2021b: 31 재인용).

원격수업은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및 훈련(TVET)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전면(또는 일부) 휴교 기간 동안 중등 직업교육기관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을 대안으로 활용하였다([그림 5] 참조). 대부분의 국가는 원격수업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였다. 70~80%의 국가에서는 가정학습 꾸러미, 텔레비전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약 1/3의 국가에서 라디오와 기타 형태의 원격학습 양상을 보였다.

그림 5.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등 직업학교에서 활용한 원격학습 방안(2020~2021년)

(단위: %)



자료: OECD/UIS/UNESCO/UNICEF/WB Special Survey on COVID. March 2021(OECD, 2021a: 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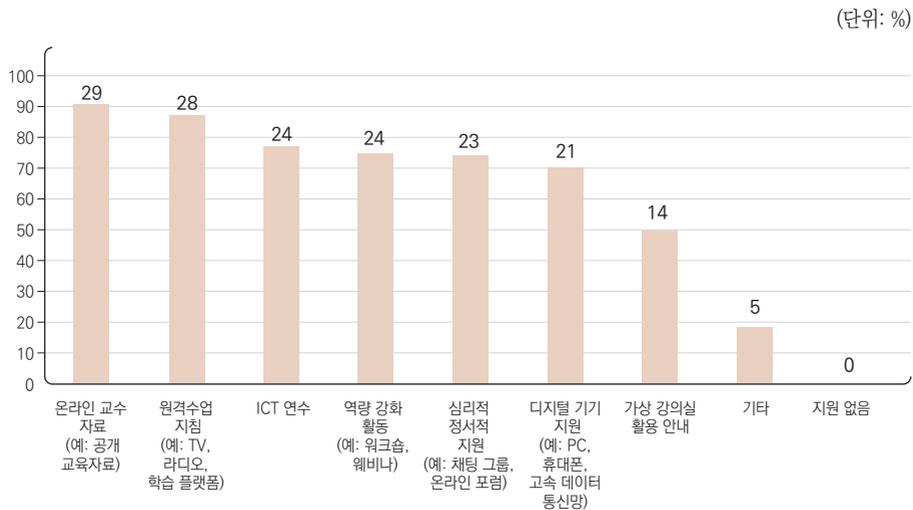
직업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수업 활용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취약 가정 학생의 원격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헝가리에서는 취약계층의 직업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및 태블릿과 같은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은 직업교육 커리큘럼 중에서 이론적이거나 학문적 교과과정일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습 중심 수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면 휴교조치가 시행된 기간에도 직업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부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직업교육 교육과정 중 실습 중심 수업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여 대면 수업과 원격교육을 병행하였다. 폴란드의 경우 감염증 유행으로 인한 제한 조치 기간에도 직업교육에서 이론수업은 원격으로 진행했지만 실습수업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중등 직업교육에서 실습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원격수업은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학교의 공식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격학습을 고려하였다(OECD, 2021a; 2021b).

원격수업 전환을 위한 지원 현황

감염증 대유행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OECD 전역의 교육 체계는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위해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플랑드르 및 프랑스 공동체, 체코, 스페인, 프랑스 등)하거나, 학교 단위(예: 오스트리아, 벨기에 플랑드르 및 프랑스 공동체, 에스토니아, 독일, 한국 등)로 지원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그림 6. 원격수업 전환을 위한 국가 지원 현황



주: OECD 34개국 및 협력 국가 데이터(모름/해당 없음 제외)

자료: OECD/UIS/UNESCO/UNICEF/WB Special Survey on COVID. March 2021(OECD, 2021b: 33 재인용).

원격수업 전환을 위한 국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① 온라인 교수자료(예: 공개 교육자료⁴⁾) 제공, ② 원격수업 지침 제공, ③ ICT 연수 제공, ④ 역량 강화 활동(워크숍, 웨비나), ⑤ 심리적 정서적 지원, ⑥ 디지털 기기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그림 6 참조). 특히 감염증 유행 기간 동안 OECD 국가(협력국 포함)의 약 70%에서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ICT 도구 또는 무료 연결망’(PC, 모바일 장치, 모바일 광대역 바우처 등)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감염증 대유행 기간 동안 원격수업에서 교사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문제는 기술적 접근의 문

4)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는 교육, 학습, 평가 및 연구 목적에 유용한 글, 미디어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가 허가된 교육자료를 통칭하며 ‘UNESCO’s 2002 Forum on Open Courseware’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임(자료: 위키피디아).

제였다(예: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등).

교사의 원격수업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OECD에서 조사한 PISA(2018) 보고서에 따르면 수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때, 교사의 준비도(기술적인 면과 교육학적인 면)에 있어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2020년에 실시한 ‘코로나19 교육 대응 공동 조사’에서 응답한 38개 국가 중 4분의 3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ICT 사용법이나 교육학적인 내용을 포함한 ‘역량 개발’을 지원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은 곧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원격수업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교사가 원격수업 전환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OECD, 2021b).

교사 간 협력 학습은 교사의 기술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OECD, 2019).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교사 참관 또는 코칭 등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교사 간의 협력이나 피드백 형식의 전문성 개발보다는 강좌나 세미나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비중이 높았다(OECD, 2019). 그러나 감염증 유행 이후, 디지털화 그리고 현장에 기반한 상호식 수업 설계로 인하여 교사 간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교사 네트워크와 공동체 형성이 가속화되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의 68%가 교사 네트워크 또는 실천 공동체를 지원하였다. 벨기에 플랑드르 공동체에서는 기존 온라인 교육 플랫폼(예: KlasCement)을 기반으로 재설계된 교사 포럼과 새로 제안된 웨비나를 통해 교사 간의 교류를 지원하였다(OECD, 2020d).

4.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규칙

대면 수업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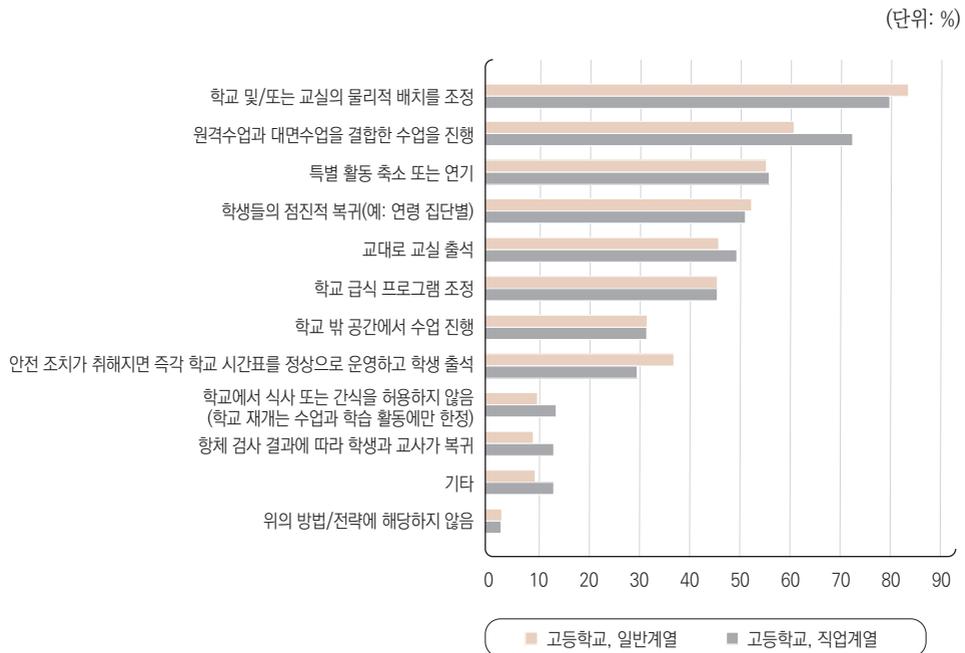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한 가지로 입증되었다. 이는 학교 맥락에서 아동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 1~2m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전규칙의 적용은 모든 학생이 교과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생들 간의 방역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수업 규모를 줄이거나 등교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지침이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

는 수업 시간 동안 교실에 허용되는 최대 학생 수에 제한을 두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초등학교 한 학급당 15명의 학생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⁵⁾(Schleicher, 2020).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최소 안전거리 지침은 교실 크기, 사용 가능한 교실, 학급당 학생 수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졌다(Schleicher, 2020: 21-23).

중등 직업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초기 코로나19 유행의 혼란기를 지나면서 학교들은 점차 전면 또는 일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 규정을 시행하였다. 중등 직업학교 역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마련되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안전한 학교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



주: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32개국과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31개국 자료를 활용함.
 자료: OECD/UIS/UNESCO/UNICEF/WB Special Survey on COVID. March 2021(OECD, 2021a: 10 재인용).

5)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2020). Réouverture des écoles et des établissements scolaires [Reopening of schools and educational establishments],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France. <https://www.education.gouv.fr/bo/20/Hebdo19/MENE2011220C.htm>

중등 직업학교의 경우, 81%의 국가에서는 대면 수업 전환을 위한 준비로 학교 및/또는 교실의 물리적 배치를 조정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중등 직업학교의 실제 수업방식에서 35개 국가의 73%는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등 직업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즉각적인 일상 복귀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등 일반학교에 비해 실습 비중이 높은 중등 직업교육 교과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지원

캐나다에서는 격리로 인한 답답함 또는 정신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각 주/준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및 전화상담 서비스 등 학부모와 학생이 사용 가능한 지원 시설의 연락처를 탑재하였다(유지연, 2021: 371). 영국 교육부에서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학교 무상급식 지침’을 발표하였다. 각 학교에서 빈곤층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내 케이터링(catering) 팀, 지자체 케이터링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 또는 학교에서 직접 가정에도시락을 배달하거나 각 가정이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강호원, 2021: 378). 핀란드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대면 관계의 단절로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심화되어,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핀란드 국립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부는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아동·청소년의 학습 및 정신건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공감하며, 교육 및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정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이은주, 2021).

II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중등 직업학교 운영 지원 강화

1. 교사를 위한 지원⁶⁾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

전면 휴교로 인한 원격수업으로의 전환과 이후 교실 정원 감축 및 엄격한 위생 조치하에 실시되었던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 등은 교사의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OECD, 2021b).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위기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가상학습 환경에 적합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을 위한 지원과 자원 조정, 학부모와의 상호교섭 증대, 보충수업 조직 또는 학교의 새로운 행정, 보건 및 안전 절차의 실행과 같은 업무에 새로운 책임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학교는 대면 수업을 위해 교실 정원을 축소하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더 많은 교사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로 인해 극소수의 국가에서는 직원 정책 및 채용방식을 변경하였다. 일본에서는 교사의 업무량을 완화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다(계획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당 평균 3명의 추가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함).

교사를 위한 디지털 교육 체계 지원

대부분의 직업학교 교사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이었다.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즉, 국가에서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과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새로운 첨단 기술은 직업교육훈련에서 학습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상 현실, 증강 현실 및 시뮬레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은 실용적인 학습의 전달을 촉진할 수 있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대면 환경을 통합하여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를 위한 핵심 역량을 교육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직업교육훈련에서 개발되지 않은 원격학습 기회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직업학교 교사 간의 상호작용 및 협력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수업개념

6) 이 절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의 '국가별 교육동향'에서 인용함(<https://edpolicy.kedire.kr>).

및 수업자료의 공유 및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포털사이트 개발에 착수하였다. ‘직업교육을 위한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주체의 교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며, 각 분야의 기관들이 인증한 콘텐츠를 포털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모든 직업학교의 교사들은 교과 내용, 교수법, 교육학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고, 수업자료를 교환하며 다른 교사와 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ildungsklick, 2021).

핀란드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규제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학습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국립교육위원회에서는 ‘위드 코로나’의 목적으로 교직원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수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위한 새로운 학습환경 및 솔루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방법의 개발과 이의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운영 모델 정립을 주목표로 한다. 특히 직업교육에서의 가상(VR) 및 증강(AR) 현실, 모의 학습 환경 구축, 보건 분야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원격교육 모델, 새로운 3D 프린팅 기술, 그리고 학생의 학습 지원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채터봇(chatterbot) 등의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이은주, 2021).

2. 실습교육과 일 기반 학습을 위한 조치

실습교육과 일 기반 학습의 어려움

직업교육 교육과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일 기반 학습은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OECD 국가 전체에서 직업계열 고등학교 학생의 34%가 도제훈련을 포함하여 학교와 일 기반 학습을 결합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고등학생의 약 90%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학생이 도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 기반 학습 커리큘럼의 구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오스트리아, 핀란드 및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전체 프로그램 중 최대 80~90%의 비중을 차지한다(OECD, 2020b).

원격수업 방식을 통한 직업학교 실습교육 운영의 한계

학교 기반(school-based), 그리고 학교와 일 기반(school and work-based)이 결합된 프로그램 모두 직업교육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실용적인 교육 형태이며 여기에는 실습이 포함된다. 특히 작업장이나 실험실에서의 실습과 현장 경험, 특수 장비의 사용 등에 있어서는 교사의 세심한 지도하에 실무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 기반 학습의 구성 요소는 일부 국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총 학습 시간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특히 농업, 보건, 공학, 건설 및 공예 등과 같은 실습 및 실무 경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일수록 원격학습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습교육을 원격 시뮬레이션 학습으로 대체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참여하는 실습 경험에 비해 제한적이다(Schleicher, 2020).

위기 상황에서의 일 기반 학습 운영의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의 위기는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이 일 기반 학습활동을 완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제활동의 감소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도제훈련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기 때문이다(OECD, 2021a). 따라서 이러한 위기는 도제훈련을 포함한 일 기반 학습 기회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2020년에 체결된 도제훈련 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9.4% 감소했으며, 슬로베니아 직업계열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22%가 2020/2021학년도 전반기에 일 기반 학습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학교 및 직장 폐쇄로 인한 실습 기회가 중단되고, 엄격한 보건 및 안전 규정 지침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이전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일 기반 학습 기회 제고를 위한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에서 일 기반 학습 기회가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만 16~24세 연령층에게 취업, 도제훈련, 직업훈련, 고등교육 또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보장'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등학교에 배치되는 학교 코디네이터에게는 고학년의 교육, 일,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 기반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Times Education Supplement, 2021). 덴마크에서는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간 인턴십에 대한 '3자 협정'을 통해 기업의 인턴십 비용 대부분을 정부에서 충당하는 임금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직업학교 학생들의 인턴십 계약이 전년도보다 약 9% 가량 증가하였다(Politiken, 2021).

그럼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는 관광업이나 요식업 등 특정 산업과 직종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OECD, 2020b). 이는 직업학교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 기반 학습 기회의 다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학교 학생에게 업무 기반 학습 기회가 부족하면 현재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직업학교 등록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감염증 유행의 영향으로 직업학교 학생들의 일 기반 학습 기회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OECD, 2021a).

일 기반 학습을 위한 대안

재정 지원

일 기반 학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도제훈련생이 고용주와 연락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원격 근무 또는 가상 회의를 통해 계속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및 룩셈부르크에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7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제훈련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등록한 신규 견습생에게 1인당 3,000유로(약 40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도제훈련생(apprentices) 및 훈련생(trainees)의 임금 보조금으로 28억 호주 달러(약 2조 4,130억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9만여 명의 고용주가 전국적으로 약 18만여 명의 도제훈련생과 훈련생의 실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다(Hurley, 2020; OECD, 2021a: 15 재인용).

관리 및 행정 지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관리 및 행

정 지원이 요구되었다. 다수의 기업은 실제 직업교육 학생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기 위한 기술이나 경험 부족, 또는 관련 행정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부족 문제 등 비재정적 장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난관은 장기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고용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재정적 인센티브는 감염증 위기로 인해 정부가 심각한 예산 압박에 직면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OECD, 2021a).

실습 영역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부와 지역 차원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조합과의 협력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영향은 각 직업의 영역에 따라 상이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일 기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습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는 학생들의 실습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은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시작하여 미래의 다양한 실습 참여의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OECD, 2020d: 6).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체계 구축

감염증 위기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화의 가속으로 기존의 업무와 직업이 재구성되거나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직업교육 체계는 자동화에 저항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 계획,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고객 서비스를 요구하는 직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학습자들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더 미래 지향적인 분야와 직업에서 훈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OECD, 2020d: 7).

디지털 원격교육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

실습 중심의 직업교육 교육과정의 특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시뮬레이터, 증강/가상 현실 또는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접근방식을 탐색하여 디지털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원격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OECD, 2020d: 7).

자격 증명을 위한 정책 및 규정 마련

디지털화와 원격수업 방식에 적합한 평가방식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소학점인 증(micro-credentials) 및 디지털 배지 수여와 같이 원거리에서도 학생의 학습 성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자격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OECD, 2020d: 7).

양질의 교육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따라 교원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직업교육 및 훈련 교사에게는 고품질 디지털 전달 기술과 웹 회의 사용에 대한 역량이 요구된다. 감염증 위기는 직업교육 인력 전반에 걸쳐 이러한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OECD, 2020d: 7).

3. 학생들의 불평등과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가정의 사회경제적 차원의 교육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정책

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 폐쇄와 개방을 반복하는 동안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지연과 학습 결손이 보고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및 이주 배경 청소년의 경우 교육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수업일수록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이유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기를 갖추고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부모의 지원이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김경애 외, 2020). 이와 같은 교육적 차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박미희, 2020).

이처럼 학생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발달 정도, 부모(또는 보호자)의 지원 수준에 따라 디지털 환경의 접근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한 국제기구의 주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① 디지털 기기 구매가 어렵거나, 인터넷 연결이 불가하거나, 학습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취약 가정에 디지털 기기 제

공(공공·민간에서의 기부 유도 등의 방법 활용), ② 원격교육 시 인터넷 연결 및 디지털 기기 활용이 제한된 학생에게 TV 교육방송, 라디오 강의 등 다른 전달 방식 활용, ③ 원격교육 기기·자료·플랫폼 등의 활용 시, 언어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 가족 자녀나 장애 학생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④ 원격교육 기간 동안 커리큘럼 내 우선순위를 재조정. 특히, 커리큘럼을 ‘교과학습’, ‘사회정서적 학습’, ‘심리적 건강’ 간의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조정, ⑤ 상황이 불리한 학생과 더 밀접한 의사소통 유지, 그리고 이들의 학습 진전을 위한 더 빈번한 관리, ⑥ 학교와 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여, 자녀의 가정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자녀의 학습진도, 가족 및 지역사회가 자녀의 학습을 위해 원격교육 시간 이외에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 ⑦ 교사, 학생, 부모에게 원격교육 기간 겪을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훈련 제공, ⑧ 불리한 학생들의 학교 중퇴 방지와 학교에의 접근성 개고를 재개교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설정. ⑨ 재개교 시 학생들의 학습수준과 학습격차를 표준화된 시험 등을 통해 파악, 특별한 학습 지원이 필요한 뒤쳐진 학생 집단을 구명하고 학습격차 축소 전략 수립. ⑩ 재개교 이후 학습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 시간 및 정규 학기 이외 기간에 추가적인 수업 제공(OECD, 2020c; UNESCO et al., 2020; UNICEF, 2020; 김경애 외, 2020: 94-95 재인용).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소외와 온라인상의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교사, 학생 및 학부모 간의 상호교섭을 유지하는 것은 휴교 기간 동안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이었다. 원격학습 시,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학생이 스스로 일에 대한 동기를 찾고 몰입하며, 온라인 수업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회복력(resilience)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는 휴교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학생이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학업성취도를 향상하는 데에는 교사와 가족의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리한 배경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Schleicher, 2020).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시기 격리와 휴교의 상황 속에서, 이미 가정 내 불안정 요소(빈곤, 가정 폭력,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 등)를 가지고 있는 불리한 학생들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격리 기간 동안 디지털 환경

에 과다 노출됨으로써, 유해 콘텐츠 및 온라인상 범죄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추가적 위협 요소까지 더해질 수 있다(김경애 외, 2020: 86).

불리한 학생을 위한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① 격리와 휴교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휴교 기간 동안 건강한 일정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하고 있거나 가족을 잃은 학생 등을 위한 특별 지원 제공, ② 이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 및 가정에 대해 NGO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③ 부모(보호자) 및 교사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지원, ④ 이해관계자(부모, 보호자, 교육자, 학생 등)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디지털 환경의 학생 안정 증진'과 관련된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촉진, ⑤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해 온라인 괴롭힘, 사기, 착취, 성범죄에 취약해질 수 있는 불리한 학생들에게 유의한 조언 제공, ⑥ 신고 및 법적 조치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에 대해 학생과 부모가 잘 알 수 있도록 지원, ⑦ 학생이 디지털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핫라인, 전화 상담 서비스, 보호센터 등의 지원 서비스 등이 가용함을 안내, ⑧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 학생의 개인적 자료, 건강 자료 등은 긴급 상황에서만 그리고 보호 장치가 있을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제한함(OECD, 2020a; UNICEF, 2020: 김경애 외, 2020: 86-87에서 재인용).

Ⅲ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

1.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교육 정책과 전달 체계 변화⁷⁾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교육 분야의 세 가지 주요 정책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럽의 국가들에서 대응한 장기적인(long-term) 교육 정책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 정책이 실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들

7) 이 절은 'Adrián Zancajo et al.(2022). Digitalization and beyond: the effects of Covid-19 on post-pandemic educational policy and delivery in Europe'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의 학교교육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지역 국가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은 다양한 국가의 정책 대응을 집중적으로 이론화·전략화하고 논의하였다. 각 국가는 국가 수준에서 정책 대응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policy plans)으로 공고화하였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 대응은 ‘교육 체계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교육 불평등 해결’, ‘교사 개발(development)’이라는 세 가지 정책 영역으로 표현되었다. 전염병 유행 기간 세 영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국가 교육 체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사태였으며 스트레스와 좌절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주요 장기 정책은 새로운 정책적 접근 또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디지털화, 교사의 성장과 교육 기회의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안, 도구와 전략들은 유럽의 경우 교육을 위한 토론회장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구조화(framed)되고 정당화(justified)되었다. 코로나19 위기는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 새로운 의제를 소개하기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위기는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촉발하였다기보다는 온라인 수업, 디지털 기술, 교사 훈련에서 부족한 부분, 유아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재분배 등에 새롭게 주목하고 추가적인 공공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기존의 경로를 변화(path change)시키기보다 이미 안건(agenda)이었던 정책 도구와 해결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경로 촉진자(path accelerator)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적절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교육 불평등을 위한 추가 예산은 긴급한 상황이 극복되었다고 판단되면 교육 예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육 체계의 디지털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예상

정책의 변화로 확인된 세 영역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교육의 디지털화이다. 유럽 국가의 국가 회복 계획에서 교육 정책의 초점은 대부분 디지털화에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회복 계획은 디지털 기술과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는 것에 주력한다. 이러한 계획에서 디지털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학교교육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형식 교육에서의 전통적인 전달 방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변화의 유형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atic)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증가(incremental)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누적되어 있는 패턴을 따르면서 작동하는 것이지 이전의 전달 방식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담화에서 디지털화가 강조되는 것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기간 동안의 교육 논쟁이 원거리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었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코로나 봉쇄(lockdown) 경험과 그 결과로 인한 이러닝 실험은 많은 교사, 학생, 가족과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충격적(traumatic)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화에 부여되는 중요성을 과도하게 추정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에 대한 중요성은 대유행 이후의 시나리오에서 학교와 교사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채우지 못할 수 있다. 교육기관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디지털화되는 추세가 줄어들고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교육 공학(education technologies)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교육 전달 방식과 교육학(pedagogy)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가', 또는 '학교 안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도구(toolkit) 중 한 가지가 될 것인가', 따라서 '교육 다양화를 구성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인가'(예를 들면, 다른 학교들보다 조금 더 디지털화된 체계를 보유한 일부 학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적 환경이 교육의 전달 체계와 이를 위한 기술의 역할에 경로를 바꾸는(path-departing)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는 몇 년 뒤에 결정될 것이다. 국제기구, 교육공학 산업계와 정부의 연합이 잠재적인 변화의 경로와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 방식의 편차와 교육 체계의 영향

마지막으로, 국가 회복 계획들을 분석해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국가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회복 계획의 개요가 청사진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많은 국가에서는 유럽 연합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을 엄격하게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분석을 통해 각 국가에서 자국 교육 체계의 약점과 강점에 따라 위기를 다르게 겪어 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디지털화와 디지털 기술 향상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는데, 이것은 덴마크에서 이미 고도로 디지털화된 교육 체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빈약한 디지털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 문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다. 사회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

를 전염병이 더욱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만든 것이다.

교육 불평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이미 마주했었던 교육적 도전과 관련이 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몰타와 같은 남유럽 국가에서 교육 불평등, 학업 중단과 퇴학 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아 돌봄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유럽 연합 기금에 신청하는 것은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들의 대응에 있어서의 편차를 이해하기 위해 교육 체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교육 체계는 획기적인 변화보다 점진적인 변화에 더욱 가까운,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회복력 있는 제도이다. 코로나19의 유행은 과거에 시작되었던 변화(디지털화와 같은)를 가속하였고 교육 불평등 축소, 교사 업무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등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의제로 논의되었던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2. 유네스코 전략 2022-2029

: 성공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해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을 변화시키기⁸⁾

‘유네스코 전략 2022-2029’의 지향점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술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을 위한 새로운 전략은 회복(recovery), 전환(transition)과 변화(transformation)를 지향한다. UN 사무총장이 2022년 9월에 소집한 ‘교육 변화를 위한 회담’(the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에서는 진화하는 기술 수요 그리고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다루는, 더욱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평생학습과 관련 있는 제도의 구축을 정부에서 담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숙련(skilling), 재숙련(reskilling)과 숙련 향상(upskilling)을 포함하는 유연한 경로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는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에 대한 확인과 전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략은 다음의 영역을 포괄한다. TVET가 개인들이 학습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경로가 되도록 하는 전환; 디지털과 녹색 전환,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기폭제(catalyst); 사회

8) 이 절은 ‘UNESCO(2022). Transform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successful and just transitions: UNESCO strategy 2022-2029’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적 통합 그리고 정의(justice)의 매개체(vector)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후 변화의 영향, 비공식적(informal) 경제의 영향력,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광범위한 활용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국가에서 청년과 성인이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시키고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변혁적 의제(transformative agenda)를 설정한다. 이 전략은 평생학습의 관점 안에서 TVET 제도의 관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작동할 것이다. 또한 이 전략은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도록 할 것이다. 이 전략은 TVET 교사와 훈련 담당자에 대한 훈련, 그리고 전 세계 기술 수요와 공급의 모니터링, 국가와 범국가적인 자격을 갱신하고 공인하는 일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6가지 영역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유네스코의 TVET 2022-2029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2030 의제’를 더 빠르게 진전시키기 위한 요구를 고려한다. 이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향한 6가지 핵심 영역에 포괄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를 인정한다. 6가지 영역은 경제적 회복(economic recovery), 기술적 변화(technological change), 비형식성(informality),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transition), 사회적 정치적 이슈(societal and political issues),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green and sustainable economic transition)이다. 유네스코 전략은 핵심 정책 영역 그리고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취해야 할 주요 조치를 설정한다. 이것은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목표(SDGs), 교육 2030 의제(Education 2030 Agenda), 청년과 성인의 문해력을 위한 전략(2020-2025) 등과 방향을 함께 한다. 청년과 성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그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변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길을 찾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전략 2022-2029’의 우선순위

유네스코에서는 TVET를 위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개인들이 학습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킨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기술 숙련, 재숙련과 숙련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개발을 지원한다. 유연한 평

생학습 경로를 구축한다. 포용과 성평등을 위한 선별적 조치를 발전시킨다. 둘째,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일자리 증가, 사적 영역(private sector) 참여, 그리고 효과적인 기술 예측과 발전을 지원한다.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을 파악한다. 청년 실업, 디지털과 녹색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다룬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과학·기술·공학·수학 융합교육), 기업가 정신 그리고 21세기 기술을 강화한다. TVET 교사와 기관에서 더 질 높고 혁신적이며 수월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리 방식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든다. 청년과 성인들에게 그들의 권한과 법칙을 가르친다. 그들이 강력한 윤리적 방향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이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정의(justice)를 옹호하도록 강화한다. 세계 시민과 참여하는 시민을 위한 권리에 기반한 교육을 통합한다. TVET 기관이 사회적 통합, 단결과 녹색 시민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한다.

IV 시사점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대유행 시기에 적용되었던 전 세계의 중등 직업학교 운영 정책과 지원 방안 그리고 대유행 이후의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중등 직업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해 왔던 정책들을 분석해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각 국가에서 자국 교육 체계의 약점과 강점에 따라 위기를 조금씩 다르게 겪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 대응은 ‘교육 체계의 디지털화’, ‘교육 불평등 해결’, ‘교사 계발’이라는 세 가지 정책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촉발하였다기보다는 온라인 수업, 디지털 기술, 교사 훈련에서의 부족한 부분, 유아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재분배 등에 새롭게 주목하고 추가적인 공공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의 유행은 과거에 시작되었던 변화(디지털화와 같은)를 가속하였고, 교육 불평등 축소와 교사의 업무를 전문화하는 것과 같이 오랜 기간 교육의 의제로 논의되었던 문제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보호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실습수업과 현장평가를 위한 등교 허용, 일 기반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도제훈련 시험에서 성인보다 학생을 우선시하는 것,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률' 임시 개정 등을 실행하였다. OECD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 체계의 구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디지털화의 가속으로 기존의 업무와 직업이 재구성되거나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동화에 저항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 계획,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고객 서비스를 요구하는 직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학습자들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더 미래지향적인 분야와 직업에서 훈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습 중심의 직업학교 교과과정의 특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터, 증강/가상 현실 또는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교육 방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기술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유네스코 전략 2020-2029'에서는 평생 학습의 관점 안에서 TVET 제도의 관련성을 증진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제안문에서는 청년과 성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변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길을 찾아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호원(2021). 영국의 교육분야에서의 '위드 코로나 시대(코로나 일상)' 대처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 교육 동향.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1&pageIndex=1&pageCondition=10&TbBoardArticleSeq=833071> (검색일자 2023. 3. 2.)
- 교육정책네트워크(2021). 해외교육동향: 국가별 교육동향.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List.do?strCurMenuId=10092> (검색일자 2023. 3. 2.)
- 김경애 · 유예림 · 이성희 · 한효정 · 김민정 · 김민희 · 임은미(2020).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안재영 · 김지영 · 강경종 · 김인엽 · 현성혜 · 송기원(2021). 『비대면 시대의 도제학교 운영 방안 연구』. 교육부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유지연(2021). 캐나다의 교육분야에서의 '위드 코로나 시대(코로나 일상)' 대처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 교육 동향.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1&pageIndex=1&pageCondition=10&TbBoardArticleSeq=833072> (검색일자 2023. 3. 2.)
- 이은주(2021). 핀란드의 교육 분야에서의 '위드 코로나 시대(코로나 일상)' 대처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기획기사'.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List.do?strCurMenuId=10091> (검색일자 2023. 3. 2.)
- Bildungsklick(2021). 독일 직업학교 교사를 위한 포탈의 필요성.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 교육 동향.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091&pageIndex=1&pageCondition=10&TbBoardArticleSeq=833070>에서 (검색일자 2023. 3. 2.)
- Cedefop(2020. 7. 7.). Hungary: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responses to Covid-19. Cedefop. <https://www.cedefop.europa.eu/en/news/hungary-national-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vet-responses-covid-19> (accessed on 3 March 2023).
- Hurley, P.(2020. 1. 1.). Impact of coronavirus on apprentices and trainees. Mitchell Institute. <https://apo.org.au/node/305868> (accessed on 3 March 2023).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2020). Réouverture des écoles et des établissements scolaires [Reopening of schools and educational establishments],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 France.
- OECD(2019). *TALIS 2018 Results(Vol. I): Teachers and school leaders as lifelong learner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x.doi.org/10.1787/1d0bc92a-en> (accessed on 3 March 2023).
- OECD(2020a). *Combatting COVID-19's effect on children. Tackling 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20b).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20c). *Tackling Covid-19: Contributing to a global effort*.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20d). *VET in a time of crisis: Building foundations for resili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Paris: OECD Publishing.

- OECD(2021a).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5afea00-en> (accessed on 3 March 2023).
- OECD(2021b). *The state of school education: One year into the Covid Pandemic*. Paris: OECD Publishing.
<http://docs.dpaq.de/17535-the-state-of-school-education-one-year-into-covid.pdf> (accessed on 3 March 2023).
- OECD · UIS · UNESCO · UNICEF · WB(2021). Survey of national education responses to Covid-19 school closures. OECD·UIS·UNESCO·UNICEF·WB
<https://covid19.uis.unesco.org/data> (accessed on 3 March 2023).
- Politiken(2021. 2. 27.). 덴마크 코로나 위기 속 직업학교 학생의 인턴십 계약 증가.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List.do?strCurMenuId=10092> (검색일자 2023. 3. 2.)
- Times Education Supplement(2021. 7. 28.). 영국 스코틀랜드, 모든 중등학교에 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List.do?strCurMenuId=10092> (검색일자 2023. 3. 2.)
- Schleicher, A.(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education: Insights from education at a glance 2020*. Paris: OECD.
<https://www.oecd.org/education/the-impact-of-covid-19-on-education-insights-education-at-a-glance-2020.pdf> (accessed on 3 March 2023).
- UNESCO(2022). Transform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successful and just transitions: UNESCO strategy 2022-2029. UNESCO.
https://unevoc.unesco.org/pub/unesco_strategy_for_tvvet_2022-2029.pdf (accessed on 3 March 2023).
- UNESCO · UNICEF · World Bank · WFP · UNHCR(2020). Framework for reopening schools. UNESCO · UNICEF · World Bank · WFP · UNHCR.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348> (accessed on 3 March 2023).
- UNICEF(2020). All means all-How to support learning for the most vulnerable children in areas of school closures. UNICEF.
https://sites.unicef.org/disabilities/files/All_means_All_-_Equity_and_Inclusion_in_COVID-19_EiE_Response.pdf (accessed on 3 March 2023).
- Zancajo, A., A. Verger and P. Bolea(2022). Digitalization and beyond: the effects of Covid-19 on post-pandemic educational policy and delivery in Europe. *Policy and Society*, 41(1), 111-128.

